

---

## 스웨덴 +40코하우징 주민의 1인가구여부 및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른 코하우징 삶의 차이

최정신\* · 조재순\*\*

---

이 연구는 스웨덴 +40코하우징 거주자의 1인가구여부와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 코하우징(cohousing) 삶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동기, 공동활동참여, 물리적 공간환경 평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Choi & Paulson(2011)이 스웨덴 전역에서 수집한 설문자료 중 +40코하우징 4개단지 거주자 127명을 대상으로 SPSS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인가구여부와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 이주동기, 공동활동참여, 물리적 공간환경 평가에 있어 유의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거주자와의 차이를 비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의 두드러진 생활특징이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의 증가와 연관하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40코하우징에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 거주자가 증가하여 다른 형태의 코하우징에서 보다 안전에 관한 이주동기가 더 중요해지고, 공동활동 공간을 높이 평가하고, 여러 공동

---

\* 주저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 전공, 명예교수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코하우징 삶의 특징이 강화되고 있는 한편, 이로 인해 +40코하우징에서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들과 다름없이 높은 생활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40코하우징의 1인가구와 여성1인가구에 따른 차이를 밝힘으로써 일반적인 코하우징 거주자 삶의 변화, 특히 +40코하우징 거주자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1인가구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코하우징 단지를 개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스웨덴 +40코하우징, 이주동기, 공동활동참여, 물리적 공간  
환경 평가, 생활만족도, 1인가구, 여성1인가구**

## 1. 서론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특성변화는 빠른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이다. 압축적 고령화는 평균수명연장과 초저출산에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세계 유래 없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통계청, 2017a). 길어진 노후를 독립적이며 활력 있게 지내기 위해 다양한 주거대안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로움과 고립, 불안감을 겪는 1인가구의 급증은 전형적인 개별가족의 독립거주가 전제된 통상적인 주거 이외에 공간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이웃공동체를 강화하고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주거대안을 필요로 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는 OECD국가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사회는 비교적 늦게 시작하여 급속하게 겹쳐서 진행됨으로써 그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출산감소, 이혼 증가, 기대수명연장, 1인가구 증가, 가족규모 축소, 사회적 고립심화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문제 등을 우리보다 일찍 경험한 바 있다. 그와 더불어 고령사회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주거생활의 대안을 찾아 운영하는 가운데 현재의 주민자치관리형 코하우징이 발달하게 되었다(주거학연구회, 2000; 최정신, 2005b; 최정신·Paulsson, 2006, 2015; 홍형옥 외, 2004; Cars, 2010; Egerö, 2010, 2012; Vestbro, 2010a, 2014). 특히 스웨덴에서는 모든 연령의 주민이 거주하는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이 일반적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붐 세대가 중장년을 지나면서 최소입주연령이 55세인 시니어 코하우징을 40세로 낮추어 +40코하우징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입주연령을 40세로 낮춘 이유는 중~노년층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시니어 코하우징 설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자의 고령화로 외부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되어 고립되기 쉬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40코하우징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과 현역에서 은퇴한 노년층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서 주민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공공복지서비스의 의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최정신·Paulsson, 2015; Egerö, 2010, 2012; Kämekull, 2010; Kollektivhus NU, 2018; Sandstedt, 2010; Sangregorio, 2000, 2010; Vestbro, 2010a, 2014). 예를 들면, 현재 페르드크내펜(Färdknäppen) +40코하우징의 주민은 절반가량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절반가량은 은퇴자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보다 +40코하우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Sangregorio, 2010).

일반적으로 시니어 코하우징 연구에서는 +40코하우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40코하우징에 초점을 둔 일련의 연구들(최정신, 2012, 2013; 최정신·Paulsson, 2015; 최정신·조재순, 2016; 조재순, 2017; Choi, 2013; Choi & Paulsson, 2011; Choi & Strid, 2011)이 발표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40코하우징 주민들이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주민들보다 코하우징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알려진 1인가구, 여성거주자, 양호한 건강, 고학력, 전문직 등의 특징이 더 뚜렷할 뿐 아니라, 코하우징의 이념 추구나 공동활동 참여 등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 특성이 강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40코하우징에서 거주비율이 높아진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가 실제로 이주동기나, 공동활동 참여, 공간환경만족도, 생활만족도 전반에 걸쳐 여타 가구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주민과의 차이분석에서 부분적으로(최정신, 2013; 최정신·조재순, 2016; Choi & Paulsson, 2011; Choi & Strid, 2011) 설명되고 있을 뿐,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40 코하우징의 여타 주민과 생활차이가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스웨덴의 코하우징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된 +40코하우징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덴마크(Kähler, 2010)나 미국(Durrett, 2009; Johnson, 2016)의 코하우징이 주로 분양용 신축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단지로 공급되는 것과 달리, 스웨덴 코하우징은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 유형이고, 민간보다는 공영주택회사가 공급한 임차형태가 많고, 규모가 크지 않고,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한 건물도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Kollektivhus NU, 2018), 우리 실정에 적용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코하우징 실태는 2011년 민간이 추진한 소행주1호 코하우징(성미산 마을) 설립을 시작으로 주택협동조합이 개발한 코하우징을 비롯하여 서울시에서도 공동체주택이란 명칭으로 시민의 수요에 맞춰 육아형, 예술가형, 사회초년생형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서울주택토지공사, 2017). 최근 ‘스웨덴 코하우징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경기도 코하우징 모델연구(Kim, 2017)’라는 논문이 발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관련연구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주제가 대부분 공동체주택 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나 선호 조사 혹은, 이에 바탕을 둔 계획안에 관한 것이다(김민영 외, 2016; 윤이나 외, 2014; 이우정·이재우, 2010). 국내 코하우징이 대부분 10호 내외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형인 상황이라 단지사례조사 이외에 코하우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유명소(2017)의 자가소유형 5개단지 45가구 중 36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 수가 적고 조사대상자 연령이 31~60세으로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이며

해외연구와 측정도구가 다르긴 하지만, 주거선택 시 이웃생활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계획과정 참여와 이웃과의 공동 활동으로 공동체의식이 향상되어 이웃생활 만족도와 전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략 외국의 코하우징 거주자의 생활특성연구와 공통된 일면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1인 가구와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주거양식을 소개함으로써 1인가구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도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40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여성1인가구의 개인과 주거의 일반적 특성은 타거주자와 차이가 있는가?
- 2) +40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여성1인가구가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동기는 타거주자와 차이가 있는가?
- 3) +40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여성1인가구의 공동활동 참여도는 타거주자와 차이가 있는가?
- 4) +40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여성1인가구의 코하우징의 물리적 공간환경 만족도는 타거주자와 차이가 있는가?
- 5) +40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여성1인가구의 코하우징에서의 생활만족도는 타거주자와 차이가 있는가?

## 2. 선행연구고찰

### 2.1. 스웨덴 코하우징의 발달과정

현재 스웨덴에서 운영되고 있는 +40코하우징과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은 기본적으로 자치관리모델(self-work model)로서 이전의 서비스모델(service model)에 적용되었던 합리적 기능주의의 공간디자인과 가사노동의 단순화라는 두 가지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한편, 가사와 육아 서비스는 공동부담으로

채용한 직원이 제공하던 서비스 구매방식에서 거주자의 자치적인 참여와 협동 활동으로 대체한 형식이다. 스웨덴 코하우징 발달과정에는 초기부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해온 여성단체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40코하우징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스웨덴 코하우징 발달과정에서 주요한 변화가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1.1 서비스 모델

스웨덴 코하우징의 초기모델은 1930년대 초, 새로운 주거양식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양성에 기여하리라는 신념을 가진 기능주의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Alva Myrdal)과 건축가 스벤 마켈리우스(Sven Markelius)가 개별주호와 공동공간이 있는 공동주거를 제안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여성협회가 이 제안에 지지를 보이면서, 혁신적인 민간인 투자로 1935년 스톡홀름 중심지인 에릭손스가탄(John Ericssonsgatan) 6번지에 첫 코하우징이 건립되었다. 스벤 마켈리우스가 설계한 이 7층 아파트 건물에는 기능적으로 설계된 소규모 개별주호 54호 이외에 공유공간으로 1층에 공동부엌(central kitchen)과 식당, 각층 복도의 네 코너로 연결된 급식용 리프트, 작은 편의점, 최초로 알바 뮈르달의 합리적인 민주시민 교육원리를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이 있었다. 가사와 육아 서비스는 고용인 22명에 의해 각 가정에서 주문한 음식을 급식용 리프트를 통해 배달받았고 세탁 서비스도 받았으며, 집안청소와 어린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Vestbro, 2010b). 가사노동을 단순화함으로써 주부가 생산적인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연구회나 정치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이 코하우징에는, 건축가 스벤 마켈리우스를 포함하여 대부분 진보적인 젊은 중산층 지식인이 거주하였으며, 맞벌이 가족의 가사와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정신, 2005b, 2012; 최정신·홍서정, 2017; Egerö, 2012; Vestbro, 2010a, 2014). 그러나 이 초기모델은 이후 세계경제불황에 따른 높은 실업문제로 기혼여성의 임금노동시장퇴출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엄마는 집에 있어야한다는 의식이 퍼져 1950년대까지 20년간 모더니스트들의 기대만큼 공공부문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코하우징은 약 30년간 운영되다가 1960년대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Vestbro, 2010a).

이 무렵 공공부분의 참여대신 온 에릭손스가탄 코하우징에 감명 받은 민간건설업자 올레 앙크비스트(Olle Engkvist)가 1944년 방 두세 개에 부엌이 달린 198개 개별주호에다 다양한 공유시설이 있는 마리베리(Marieberg) 코하우징을 비롯하여 10여 년간 스톡홀름에 6개단지를 건설하였다. 올레 앙크비스트는 급식용 리프트를 없애고 식사를 개별가정으로 배달하는 대신 입주자에게 월별 일정분량(24회)의 식권사용을 의무화하여 입주자 전용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였다. 초기에 이 단지에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다수 입주하였으나 점차 스웨덴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일반주거지역에 공보육시설과 신규주택공급이 늘면서 다자녀 가족들이 이사 나가고 그 자리에 편모가정들이 입주하였다. 이곳은 한 부모가정에게는 물론이고 양부모가정도 아빠가 자녀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를 위한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입주자들이 식당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이웃과 만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올레 앙크비스트 모델의 마지막 건물은, 1955~6년에 건축한 규모가 가장 큰 328개 주호의 해셀비 가족호텔(Hasselby Family Hotel)로 스벤 마켈리우스와 소유주 올레 앙크비스트도 거주하면서 서비스 시설을 운영했다. 올레 앙크비스트가 사망한 1969년 이후, 근로자의 임금인상, 입주자의 식단 다양화와 식당운영시간 연장 요구 등의 갈등으로 후계자가 결국 1976년 식당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지만(최정신, 2012; 최정신·홍서정, 2017; Sangregorio, 2000, 2010; Thiberg, 1990; Vestbro, 2010a, 2014) 이 과정에서 거주자들은 자주 모여 회합하면서 사이가 매우 돈독해졌다.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은 총 17개단지가 설립되었으며 대부분이 무렵 해체되어 일반아파트 건물이 되었다(Kollektivhus NU, 2018; Vestbro, 2010a).

### 2.1.2 자치관리 모델

1960~70년대 스웨덴은 어린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급증과 유럽 전역에 걸친 “1968”청년봉기의 영향으로 전업주부를 전제로 하는 핵가족

의 문제점과 유급노동과 육아, 가사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기혼여성의 과중한 역할부담 해소방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히 이뤄지고, 이에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공보육서비스 확대와 100만호 주택건설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는 시기이다(Cars, 2010). 이 때 여성단체 거의 대부분은 코하우징 건설을 요구하였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두 사건이 자치관리모델 코하우징의 아이디어가 발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는 해셀비 가족호텔 식당의 폐쇄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일부 입주인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이 식사를 준비해보기로 결정하고 부엌과 식당을 빌려 팀을 짜서 외부인의 도움 없이 100인분 정도의 식사준비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식단과 식사시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 공동 참여와 협동에 기반 한 새 모델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Cars, 2010; Sangregorio, 2000, 2010; Thiberg, 1990; Vestbro, 2010a, 2014). 이곳에서는 지금도 일부주민 50여 가구가 공동으로 식사준비를 계속하고 있다(Vestbro, 2010a).

다른 하나는 1977년 10여명의 여성건축가모임에서 기혼여성의 취업활동 급증과 더불어 석유파동으로 에너지와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해야하고 자원소비가 많은 교외의 단독주택거주를 대체할 만한 대안주거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안주거가 갖추어야 할 합의된 특징은 일상생활의 부담경감과, 남녀평등증진, 자녀출산과 양육하기 쉬운 거주환경으로, 이는 개별 소가족보다는 프라이버시와 공동체 둘 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일종의 공동주거 형태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들이 주민참여와 협동에 대한 현실적 확신을 갖게 되는 데는 해셀비 가족호텔에 살던 회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남녀 구분 없이 집안일과 자녀 돌봄을 함께하던 공동가정의 장점을 보고, 덴마크 코하우징(bofællesskaber) 단지 답사 등이 도움이 되었다. 스톡홀름(Stockholm) 시의회 여성위원회의 지원과 수많은 긴 토론을 거치면서 마침내 주민참여에 의한 20~50호 소규모 코하우징이 경제적이고 실천적 일뿐 아니라 의식변화도 가져오는 장점이 많다고 확신하게 된 이들은, 거주자가 함께 일에 참여하



는(working together model)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켜 BIG (Bo i Gemenskap, 영 어의미 live in community, 공동체에서 살기)이란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여 확산하게 된다. 이 이름을 따서 스웨덴의 자치관리모델을 BIG모델이라 부르 기도 한다(최정신·홍서정, 2017; Egerö, 2010, 2012; Kärnekul & Vestbro, 2013; Sangregorio, 2000, 2010; Thiberg, 1990; Vestbro, 2010a, 2014). 이들은 이후에 도 실천적 연구보고와 언론기사연설·인터뷰·TV출연 등을 통해, 그리고 스웨 덴 코하우징협회(Kollektivehus. NU) 구성, 제1차 세계코하우징대회 개최 등, 코하우징 연구자이자 실천가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자치관리모델은 이전의 서비스모델처럼 개인공간을 기능적으로 설계하여 규모를 10%정도 축소함으로써 건축비와 임대료 상승 없이 더 넓은 공동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용 한 직원의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던 방식에서 거주자의 협동과 참여 로 일을 분담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자치관리모델의 첫 코하 우징은 BIG모델의 아이디어에 매료된 샬머스(Chalmers)공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라스 오그렌(Lars Ågren)이 1960년대 자신이 디자인한 예테보리 (Göteborg) 교외지역인 베리쥘(Bergsjön)에 위치한 10층 타워형 임대아파트 한 동을, 소유주인 공영주택회사의 허락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1979년에 설 립한 스타켄(Stacken)이다. 스타켄은 예비입주자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으 로 원래 방3개와 부엌이 있던 40개 주호를 방 1~6개와 부엌이 있는 다양한 규모의 33개 주호로, 이 중 6층은 공동부엌과 식당, 어린이 집으로 개조되었 다. 이 코하우징에는 라스 오그렌도 거주하면서 첫 자치관리모델로서 많은 실험과 도전을 거쳐, 2000년대 중반에 건물을 협동조합 형태로 소유한 젊은 거주자들이 들어와 새롭게 활성화하고 있다(Sangregorio, 2000, 2010; Thiberg, 1990; Vestbro, 2010a, 2014).

1980년대는 스웨덴에서 공동체의식과 주민들의 협동에 기반 한 자치관리 모델 코하우징이 가장 왕성하게 설립되는 전성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영주 택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1990년대 초까지 대부분 BIG모델을 따른 50여개의 코하우징이 설립되었다(Egerö, 2012; Kollektivhus NU, 2018; Sangregorio, 2000, 2010; Vestbro, 2010a, 2014). 나머지 소수는 공영주택회사

가 의도한 것으로 코하우징과 노인이나 장애인 특수주거를 결합한 형식이다 (Kärnekul & Vestbro, 2013). 코하우징 건설을 외면하던 주택회사가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Sangregorio, 2010) BIG모델이 규모, 소유권, 공동활동 등이 다양한 코하우징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20~50가구의 소규모건물은 신규주택건설이나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어 건설상 위험이 적고, 소유주나 주택회사가 식사 같은 서비스제공 없이 건물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부담이 없고, 실제 코하우징 임차인들이 공용공간 뿐만 아니라 정원 가꾸기와 잔디 깎기 등 건물전반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자신들의 전문경력개발보다 스스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여성운동가이자 건축가인 BIG 회원들은 그들 중 여럿이 자녀를 기르고 있었고, 어린이는 부모 이외에도 많은 성인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하우징 거주자 구성을 당연히 연령통합형으로 구상하고 제안해 왔다. 그러다가 1980년 중반 들어 현실적으로 자녀를 성장시켜 독립시킨 사람들 중에는 어린이가 있는 코하우징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자녀독립 후의 인생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 은퇴를 즐기는 노년초기, 인생 성숙기를 지내는 노년후기 등 다양한 단계의 삶이 있으며(Kärnekul, 2010), 중·장년기를 지나 시니어가 되어서도 오랫동안 즐겁고 용이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코하우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자녀를 독립시킨 인생 후반을 위한 +40코하우징(housing for the second half of life)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3년 스톡홀름 중심에 페르드크내펜 코하우징 설립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최정신·Paulsson, 2015; Egerö, 2012; Kärnekul & Vestbro, 2013; Kollektivhus NU, 2018; Sangregorio, 2000, 2010; Thiberg, 1990; Vestbro, 2010a, 2014). 1987년 결성한 입주예정자조합원들이 2년간 공동체 이념을 논의한 후, 건설사인 공영주택회사가 단지를 기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예비주민들의 요구를 면밀하게 반영시켰다. 이 단계에는 BIG 창립회원이며 +40코하우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준비 단계부터 단지계획과 설립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코하우징 지도자이

자 실천적 활동가 둘(Kärnekull, 2010; Sangregorio, 2010)이 거주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없으며 최소입주연령을 40세로 낮춘 이 단지 설립모형을 따라 +40코하우징 단지가 7개 더 설립되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보다 +40코하우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 높은 상황이다 (Sangregorio, 2010).

1990년대 중반이후는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스웨덴의 주거정책이 급변하는 시기이다. 1995년 EU가입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는 EU기준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주도형 공영주택회사의 주택공급제도를 경쟁체제로 민간회사에 개방하고, 공공기금의 주택건설비지원 등도 중단해야 했으며, 공영주택회사소유의 주택도 민간소유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코하우징이 절반가량은 스톡홀름에, 나머지 절반은 그 외 주요도시와 대학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공영주택회사 소유의 임대주택이 많은 특징에 비춰볼 때 코하우징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이다. 실제로 신규주택건설은 1960~70년대에 절정을 이룬 후 1980년대 이후부터 감소하면서 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대도시에 주택부족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코하우징 신규설립도 소수가 느리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1인가구와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에 따른 외로움과 불안감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동체의 함께 더불어(togetherness)와 안정감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40코하우징 설립에 우호적인 상황이라 보고 있다. 또한 코하우징에서의 참여와 협동을 통한 이웃 간의 활발한 인적지원은 일상생활의 잔존능력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가사지원 서비스나 가정간호 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능한 한 살던 집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양원로서의 입주를 지연하거나 아예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스웨덴 코하우징 운동을 이끌어 온 연구자이자 실천가들은 2차세계대전 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격변의 사회변화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협동하는 코하우징 삶을 통해 남녀평등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주도적으로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Cars, 2010; Egerö, 2012; Vestbro, 2010a, 2014). 여기에 더해 이제는 스스로 노년기를 맞으면서 인간적이며 지속가능

한 인생후반을 위한 이상적인 +40코하우징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기 마련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 및 세계적인 연대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정신·Paulsson, 2015; Kärnekull, 2010; Sangregorio, 2010; Vestbro, 2010a, 2014).

## 2.2 +40코하우징 거주자의 생활에 관한 실증연구

스칸디나비아 자치관리 모델의 노인용 코하우징에 살고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전반을 대규모로 실증 조사한 연구(조재순, 2017)는 최정신과 폴손(Paulsson)이 2002년 스웨덴과 덴마크의 16개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를 답사하여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28개단지 거주자 655명을 설문조사한 것이 처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는 주로 시니어 코하우징의 물리적 디자인 특성(최정신, 2003a, 2003c; Choi, 2004)이나, 주민의 이주동기(최정신, 2003b), 공동활동참여(최정신, 2005b), 생활만족도(최정신, 2005a) 등의 주제로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자료 분석은 대부분 기술적인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소수는 일반적 특성(최정신, 2003a, 2004)이나 성별(최정신, 2004; 최정신·조재순, 2006), 국가(최정신, 2005a) 등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조사자료 전반을 총괄한 내용은 *European Planning Studies*에 논문(Choi, 2004)과 한글판 단행본(최정신·Paulsson, 2006)으로 발표되었다.

이어서 이 연구팀은 2010년 같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스웨덴 전역의 8개 연령통합형 단지와 4개 +40코하우징 단지 거주자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통합형과 +40코하우징의 유형별로 물리적 환경 디자인(최정신, 2012)이나 이주동기(Choi, 2013; Choi & Strid, 2011), 공동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Choi & Paulsson, 2011) 등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수집시기가 다른 두 자료를 활용하여 +40코하우징과 시니어코하우징 거주자의 이주동기(최정신, 2013)나 공동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최정신·조재순, 2016)의 시계열 차이, 모리스와 윈터(Morris & Winter)의 주거조절모형을 응용한 회귀분석(Choi et al., 2014)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시니어 코하우징 선행연구결과에서 이주동기는, 1인가구가 동거인

이 있는 거주자에 비해 개인적 이유가 더 많은 반면, 주거관리 이유나 환경적 이유는 더 적었으며(최정신, 2003b), 여성 거주자는 남성 거주자보다 개인적 이유(배우자 사망)와, 안전상의 이유(안전감과 외롭지 않으려고)가 더 높게 나타나(최정신·조재순, 2006) 1인가구여부나 성별 차이를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공동활동의 빈도(Choi, 2004)에 대해서는 1인가구가 동거인이 있는 거주자보다 적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고,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비슷하게 높은 가운데 1인가구는 동거인이 있는 거주자보다 이사 오기 전에 가졌던 기대 충족은 더 긍정적으로, 현 생활과 주거에 대한 만족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차이가 있었다.

비교연구에서는,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은 시니어 코하우징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알려진 60~70대의 비교적 건강한, 고학력, 전문직, 여성, 독신이 많다는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최정신·조재순, 2016).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주요동기도 +40코하우징 거주자는 시니어 코하우징 거주자나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거주자에 비해 개인적 이유나 안전관련 동기가 더 강하였으며(최정신, 2013; Choi, 2013; Choi & Strid, 2011), 공동활동 참여도가 더 높고, 생활만족도도 몇몇 항목에서 더 높았다(최정신·조재순, 2016; Choi & Paulsson, 2011). 나아가 +40코하우징에 계속거주 예정자는 주거이동 의도를 가진 거주자보다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나 코하우징의 이념에 강한 동기를 갖고 있으며, 공동식사나 자치운영위원회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고, 모든 측면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았다(조재순, 2017).

이와 같이 비교연구결과에서 +40코하우징 거주자의 생활특성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점들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1인가구나 여성 거주자가 지닌 차이와 유사해 보인다고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며, 그나마 차이를 본 종속변수의 구체성이 상이하거나 통계분석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명료하게 파악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0코하우징 거주자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1인가구여부나 여성1인가구여부에 초점을 맞춰 이주 동기, 공동활동 참여도, 물리적 공간환경 평가, 생활만족도 등 여러 선행연구가 부분적으로 다룬 것을 포괄하여 생활전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최정신과 Paulsson이 2010년 스웨덴 코하우징 홈페이지에(www.kollektivhus.nu)에 등록된 44개 코하우징 단지목록에서 대표자의 협조 하에 5개 주요도시의 12개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한 원자료(Choi, 2013a; Choi & Paulsson, 2011)의 일부이다. 이 연구를 위한 +40코하우징 주민에 관한 자료는 원자료 242명 가운데 연령통합형 코하우징을 제외하고 +40코하우징 4개단지에 거주하는 127명에 대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톡홀름, 예테보리, 팔룬(Falun) 3개 지역에 위치한 각 +40코하우징 조사대상 단지에는 31~50가구씩 총 16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165부를 발송하여 각 단지별로 26~38부씩 총 127부(회수율 127/165=77.0%)가 회신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최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으나 스웨덴에서도 전국에서 표집한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생활실태 조사 자료가 최정신과 Paulsson 연구팀의 것이 유일한 실정이다. 또한 2010년 현재 스웨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8.5%, 노년부양비가 31.6%인 상황(SCB: 2017a, 2017b)으로, 이 시점의 연구결과는 우리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년 내에 당면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7a)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2023년에 18.0%,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5%로 예상되어 스웨덴의 2010년 상황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또한 스웨덴은 1인가구 비율이 이미 1950년에 세계 1위 국가였으며(Depaulo, 2015), 2015년 현재 우리나라 27.2%비해 36.2%로 이는 우리나라 2045년도 추정치 36.3%와 비슷한 수준이다(통계청, 2017b; SCB, 2017c).

<표 1> 조사대상 +40코하우징 단지의 일반적 특성

단지명	위치	설립 연도	이주 연도	건물유형	소유 권	주택수	설문지 배부수	설문지 회수수
페르드크 내펜 (Färdknäppen)	스톡홀름	1987	1993	4~7층 아파트	공영 임대	43	40	26
마이박켄 (Majbacken)	예테보리	2003	2004	8층 아파트	공영 임대	31	31	29
속켄스투간(Sockenstugan)	스톡홀름	1994	1999	2~3층 아파트	공영 임대	50	50	34
테르센 (Tersen)	팔룬	2000	2005	3층 아파트	조합 소유	44	44	38
합계						168	165	127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40코하우징 단지주민의 ① 일반적 특성 8개 문항 (성별, 연령, 거주형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업, 주택규모, 거주기간), ② 5개 범주의 이주동기 4점 리커트척도 19개 문항 (개인관련 이유 3개 문항, 주거관련 이유 5개 문항, 안전관련 이유 6개 문항, 환경관련 이유 4개 문항, 이념적 이유 1개 문항), ③ 공동활동 참여도 6점 리커트척도 7개 문항 및 공동활동의 빈도와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각1개 문항, ④ 3개 범주의 물리적 공간환경 만족도 4점 리커트척도 17개 문항 (건물디자인 3개 문항, 공동생활공간 8개 문항, 개인주거공간 6개 문항), ⑤ 생활만족도 3, 5점 리커트척도 6개 문항에 관한 것이다. 모든 리커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1인가구여부 변수는 응답자의 거주형태를 알아 본 문항으로, 전체응답자 127명 가운데 1인가구 응답자가 86명(67.7%),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가 41명(32.3%)이었다. 여성1인가구여부 변수는 여기에 성별을 추가로 고려한 것으로, 1인가구 응답자 중 남성응답자 15명을 제외한 여성1인가구 응답자 71명(59.9%)과, 남성1인가구(15명)와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41명)를 합한 56명

(44.1%)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1인가구여부와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 일반적 특성, 이주동기, 공동활동 참여도, 물리적 공간환경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1인가구여부별 차이와 여성1인가구여부별 차이를 각각 별개로 분석하였으나 표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연구문제에 따라 한 표의 좌우에 제시하였으며, 합계는 좌우 분석 결과에 공통사항이어서 표의 가로크기를 줄이기 위해 좌측분석에만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1인가구여부별 차이와 여성1인가구여부별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각 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는 합계는 다른 목적의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자료를 포함한 선행연구(최정신, 2012, 2013; 최정신·조재순, 2016; 조재순, 2017; Choi, 2013; Choi & Paulsson, 2011)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 4. 연구 결과

###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

+40코하우징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의 중간 열 합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거주자의 성별은 여성(70.9%)이 남성(29.1%)보다 약 2.5배 가까이 더 많았다. 연령은 60대가 절반가량(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70대 이상(37.8%)으로 50대 이하는 10명 중 1명이 갓 넘는(12.6%) 정도로 +40코하우징이라 하더라도 설립 후 입주기간이 경과하면서 입주자들이 나이 들어감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는 거의 대부분(85.0%)이 매우 양호(50.4%)하거나 양호(24.4%)한 가운데 10명 중 한두 명(15.0%) 정도는 양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은 70.9%가 전문대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높았고, 직업은 주로 교육계(40.9%)나 고위직 공무원·회사원(29.1%)이 70.0%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거규모는 대부분(75.6%) 침실



1~2개에 부엌이 있으며, 거주기간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조재순, 2017).

<표 2> 1인가구 여부와 1인여성가구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

		1인가구 여부			X <sup>2</sup> -value	여성1인가구 여부		X <sup>2</sup> -value
일반적 특성		1인 가구 (n1= 86)	동거 가구 (n2= 41)	합계 (n= 127)		여성1 인가구 (n1= 71)	기타 (n2= 56)	
성 별	남성	15 (17.4)	22 (53.7)	37 (29.1)	17.63 8***			
	여성	71 (82.6)	19 (46.3)	90 (70.9)				
연 령	~59세	12 (14.0)	4 (9.8)	16 (12.6)	8.672 *	10 (14.9)	6 (10.7)	3.50 3
	60~69세	35 (40.7)	28 (68.3)	63 (49.6)		30 (42.3)	33 (58.9)	
	70세~	39 (45.3)	9 (22.0)	48 (37.8)		31 (43.6)	17 (30.4)	
건 강 상 태	보통	15 (17.4)	4 (10.0)	19 (15.0)	2.581	13 (18.3)	6 (10.7)	1.71 2
	양호	32 (37.2)	12 (30.0)	44 (34.6)		25 (35.2)	19 (33.9)	
	매우 양호	39 (45.3)	24 (60.0)	64 (50.4)		33 (46.5)	31 (55.4)	
교 육 수 준	초등학교 졸업	5 (5.8)	1 (2.4)	6 (4.7)	.715	5 (7.0)	1 (1.8)	2.56 3
	중고등학교 졸업	21 (24.4)	10 (24.4)	31 (24.4)		15 (21.1)	16 (28.6)	
	전문대/ 대학교 졸업	60 (69.8)	30 (73.2)	90 (70.9)		51 (71.9)	39 (69.6)	
	가정주부	1 (1.2)	0 (0)	1 (0.8)		1 (1.4)	0 (0)	
직 업	단순 노동자	6 (7.0)	3 (7.3)	9 (7.1)	7.435	5 (7.0)	4 (7.1)	5.86 4
	전문교육 필요 노동자	2 (2.3)	4 (9.8)	6 (4.7)		2 (2.8)	4 (7.1)	

	공무원/ 단순 사무직	8 (9.3)	1 (2.4)	9 (7.1)		7 (9.9)	2 (3.6)	
	고위직 공무원/ 회사원	28 (32.6)	9 (22.0)	37 (29.1)		23 (32.4)	14 (25.0)	
	학자, 교육자	33 (38.4)	19 (46.3)	52 (40.9)		26 (36.6)	26 (46.4)	
	CEO/ 기업주	4 (4.7)	2 (4.9)	6 (4.7)		4 (5.6)	2 (3.6)	
	기타	4 (4.7)	3 (7.3)	7 (5.5)		3 (4.2)	4 (7.1)	
주택 규모	1~2실 + 부업	80 (93.0)	16 (39.0)	96 (75.6)	44.66 3***	67 (94.4)	29 (51.8)	31.0 74** *
	3실 + 부업	6 ( 7.0)	21 (51.2)	27 (21.3)		4 (5.6)	23 (41.1)	
	4~5실 + 부업	0 ( 0)	4 ( 9.8)	4 ( 3.1)		0 ( 0)	4 (7.1)	
거주 기간	2년 이하	27 (31.4)	19 (46.3)	46 (36.2)	10.45 4**	22 (31.0)	24 (42.9)	6.53 1**
	3~7년	24 (27.9)	17 (41.5)	41 (32.3)		20 (28.2)	21 (37.5)	
	8년 이상	35 (40.7)	5 (12.2)	40 (31.5)		29 (40.8)	11 (19.6)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40코하우징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이 1인가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2> 좌측), 성별과 연령, 주거규모와 거주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인가구는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여성이 많으며, 규모가 작은 주택에 더 오랫동안 거주한 반면, 건강상태나 교육수준, 직업 같은 개인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표 2> 우측), 주거규모와 거주기간 같은 주거특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인 특성인 연령,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업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1인가구는 다른 +40코하우징 응답자와 개인적 특성에서는 차이

가 없으며 다만, 주거특성에서 1인가구처럼 좀 더 작은 규모의 집에 좀 더 오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분석 결과, +40코하우징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중 개인특성은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며 1인가구는 여성이나 연령이 다소 많다는 차이가 있는 반면, 주거특성은 1인가구이나 또는 여성1인 가구이나에 상관없이 모두 다른 거주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거에 좀 더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하우징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통합형 거주자와 +40코하우징 거주자간의 차이를 비교한 선행연구(Choi, 2013; Choi & Paulsson, 2011)에서도 예상 할 수 있는 연령과 주거규모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60~70대의 건강한, 고학력, 전문직이 많다는 특징이 1인가구여부와 성별을 통제해도 보편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다.

## 4.2. 이주동기 차이

현재 거주하는 +40코하우징으로 주거이동하게 된 동기를 5개 범주의 19개 항목으로 알아본 4점 리커트척도 측정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 3>의 중간 열 합계), 평균값이 가장 높은 동기범주는 이념적 이유(3.44)이며, 그 다음은 안전관련 이유(2.84), 환경관련 이유(2.30), 주거관리관련 이유(1.52), 개인관련 이유(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40코하우징으로 주거이동한 이유는 평균적으로 주거관리나 개인 관련이유 보다는 +40코하우징의 이념이나 안전, 환경관련 이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재순, 2017). 특히 안전의 동기범주에 속한 항목들의 점수 차이가 큰 것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수와 강도가 크게 다름을 의미한다.

5개 이주동기 범주의 평균 차이를 1인가구여부에 따라 보면(<표 3> 좌측), 전반적인 동기순위는 전체 거주자와 동일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이주동기로 낮게 나타났던 개인관련 이유와 주거관리관련 이유 두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는 특히 ‘이혼’과 같은 개인관련 이유가,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특히 ‘주거규모를 줄이기’ 위한 주거관리관련 이유가 각각 상대

거주자들 보다 더 많아 1인가구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데 비해, 상대적으로 이주동기가 높은 +40코하우징 이념이나 안전, 환경 관련이유는 1인가구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없이 +40코하우징 거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높은 이주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 보면(<표 3> 우측), 5개 이주동기범주에서는 특히 ‘은퇴자가 되어서’를 포함한 개인관련 이유 범주가 여성1인가구에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로 유의하지 않은 4개 범주 가운데 3개 범주에 속한 6개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거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위치가 좋아서’, ‘문화활동과 행사에 접근하기 쉬워서’와 같은 주거관리나 환경관련 이유에 속한 3개 이주동기항목은 타거주자들이 여성1인가구보다 더 높았으며, ‘안심하기 위해서’, ‘혼자 지내지 않으려고’,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와 같은 3개 항목의 안전관련 이유는 여성1인가구가 타거주자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 이주동기였다. 이주동기가 가장 높은 +40코하우징 이념이 좋아서 이유는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는 이혼이나 은퇴 같은 개인관련 이유가 타 거주자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이주동기로 작용하였으며, 여성1인가구는 1인가구와 공통적인 혼자지내지 않기 위해 항목이외에도 특히 안심하기 위해서나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와 같은 안전관련 이주동기가 좀 더 다양하게 많았다. 한편, 주거규모를 줄이기 위한 주거관리관련 항목과, 위치나 문화활동과 가까워서와 같은 환경관련 항목은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보다 타 거주자에게 더 중요한 이주동기로 작용하였다. +40코하우징 이념 관련이유는 1인가구 여부 혹은 여성1인가구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주동기였다.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동기를 +40코하우징 거주자와 시니어 코하우징 거주자와 비교한 선행연구(Choi, 2013)에 의하면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은 시니어 코하우징 거주자들보다 주거관련 이유나 환경관련 이유는 감소한 반면, 안전관련 이유가 높았다. 또한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은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거주자보다 이혼과 같은 개

인관련 이유와 코하우징 이념이 좋아서 이유가 더 강했다(Choi, 2013; Choi & Strid, 2011).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밝힌 변화나 차이는 본 연구의 1인가구 여부에 따른 이주동기 차이를 바탕으로 볼 때, +40코하우징에 1인가구 증가와 일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1인가구 여부와 1인여성가구 여부에 따른 이주동기 차이  
평균 (SD)

이주동기	1인가구 여부			t-value	여성1인가구 여부		
	1인가구 (n1=86)	동거가 구 (n2=41)	합계 (n=127)		여성1인 가구 (n1=71)	기타 (n2=56)	t-value
개인관련 이유	1.38 (1.424)	1.15 (.808)	1.30 (1.297)	8.583* *	1.38 (1.447)	1.21 (1.019)	5.112*
은퇴자가 되어서	1.57 (.940)	1.34 (.656)	1.50 (.863)	1.960	1.63 (.989)	1.32 (.636)	4.210*
이혼해서	1.40 (.858)	1.07 (.346)	1.29 (.747)	5.350*	1.32 (.770)	1.25 (.720)	.305
배우자가 사망해서	1.17 (.654)	1.02 (.156)	1.13 (.549)	2.091	1.18 (.683)	1.05 (.297)	1.753
주택관련 이유	1.45 (2.823)	1.67 (2.921)	1.52 (2.890)	4.190*	1.45 (2.886)	1.61 (2.860)	2.402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48 (.904)	1.80 (1.077)	1.58 (.971)	3.224	1.44 (.857)	1.77 (1.079)	3.719
주택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1.71 (1.039)	2.20 (1.100)	1.87 (1.079)	5.844*	1.68 (1.010)	2.11 (1.123)	5.161*
주택규모를 늘이기 위해서	1.09 (.364)	1.02 (.158)	1.07 (.313)	1.337	1.10 (.384)	1.04 (.187)	1.264
노인/장애	1.50	1.61	1.54	.421	1.52	1.55	.041

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아서	(.864)	(.965)	(.889)		(.893)	(.893)	
노인/장애인에게 적합한 건물을 찾아서	1.45 (.821)	1.71 (.981)	1.54 (.880)	2.334	1.51 (.860)	1.57 (.912)	.166
안전관련 이유	2.86 (3.743)	2.78 (4.095)	2.84 (3.851)	.472	2.93 (3.544)	2.72 (4.135)	3.393
안심하기 위해서	2.51 (1.155)	2.39 (1.137)	2.47 (1.147)	.7309	2.69 (1.116)	2.20 (1.135)	6.036*
혼자 지내지 않으려고	3.06 (.986)	2.46 (1.075)	2.87 (1.049)	9.523**	3.11 (.979)	2.56 (1.060)	9.488**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3.53 (.698)	3.37 (.733)	3.48 (.771)	1.576	3.61 (.643)	3.32 (.765)	5.167*
이웃과의 상호협조를 위해서	2.29 (1.020)	3.00 (.975)	2.94 (1.002)	.182	2.99 (1.021)	2.89 (.985)	.268
이웃과의 공동활동을 위해서	3.27 (.926)	3.37 (.767)	3.30 (.876)	.349	3.32 (.938)	3.27 (.798)	.128
단지에 지인이 있어서	1.90 (1.096)	2.10 (1.114)	1.96 (1.101)	.936	1.86 (1.060)	2.09 (1.149)	1.371
환경관련 이유	2.28 (3.454)	2.32 (2.723)	2.30 (3.226)	.062	2.22 (3.382)	2.40 (2.995)	1.692
건물이 도심의 좋은 위치에 있어서	2.55 (1.025)	2.85 (.882)	2.65 (.988)	2.718	2.45 (1.011)	2.89 (.908)	6.543*
문화행사와 활동에	2.20 (1.125)	2.44 (.950)	2.28 (1.074)	1.406	2.10 (1.071)	2.50 (1.044)	4.494*

접근하기 쉬워서								
자연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2.02 (1.095)	1.73 (.867)	1.93 (1.033)	2.235	1.92 (1.038)	1.95 (1.034)	.028	
건물의 디자인과 외관이 아름다워서	2.37 (1.041)	2.27 (.923)	2.34 (1.002)	.296	2.39 (.969)	3.38 (.885)	.497	
이념적 이유 +40코하우 징의 이념이 좋아서	3.42 (.976)	3.49 (.840)	3.44 (.931)	.152	3.49 (.969)	3.38 (.885)	.500	

\* p < .05, \*\* p < .01, 평균 = 4점 리커트 척도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약간 그렇다, 4.매우 그렇다)

### 4.3. 공동활동 참여도의 차이

현재 거주하는 +40코하우징에서 참여하고 있는 각 공동활동의 참여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표 4>의 중간 열 합계), 전체 응답자가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공동식사로 6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5.1인데, 이는 일주일에 평균 한번이상~수차례 공동식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식사 다음으로는 공동커피 모임(4.30), 자치운영위원회(3.74) 순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그 밖에 공동체육활동, 공동정원 가꾸기, 공동취미 활동 등에는 평균 3점 안팎 정도로 참여하고 있었다(조재순, 2017).

이러한 공동활동참여 경향이 1인가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표 4> 좌측), 전체적으로 1인가구는 동거인이 있는 거주자보다 공동활동에 유의하게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활동별로는 평균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동체육활동과 공동정원가꾸기 2가지 활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거주자의 평균 참여도가 높은 공동활동인 공동식사와 공동커피

피모임, 자치운영위원회 참여 등도 1인가구의 평균이 다소 높긴 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를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 보면(<표 4> 우측), 공동체육활동 참여 1개 항목만 제외하고 전체참여도와 다른 모든 항목의 공동활동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도록 높지는 않았다. 여성1인가구의 공동활동참여 차이는 타거주자들보다 공동체육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점에서 1인가구여부에 따른 차이와 유사하지만 덜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1인가구 여부와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른 공동활동 참여도의 차이  
평균 (SD)

공동 활동	1인가구 여부			t-value	여성1인가구 여부		t-value
	1인가구 (n=86)	동거가 구 (n=41)	합계 (n2=1 27)		여성인 가구 (n1=71)	기타 (n2=5 6)	
자치운영 위원회/ 주민회의 등	3.81 (.805)	3.59 (.774)	3.74 (.799)	2.296	3.83 (.792)	3.63 (.799)	2.099
공동 식사	5.14 (.597)	5.02 (.524)	5.10 (.575)	1.114	5.13 (.608)	5.07 (.535)	.288
커피 모임	4.31 (1.473)	4.27 (1.304)	4.30 (1.416)	.029	4.25 (1.431)	4.36 (1.407)	.167
취미 모임	2.97 (1.475)	2.66 (1.315)	2.87 (1.427)	1.284	2.96 (1.478)	2.75 (1.365)	.661
운동, 산책, 걷기 모임	3.27 (1.662)	2.49 (1.719)	3.02 (1.714)	5.974*	3.34 (1.638)	2.61 (1.734)	5.918*
정원 관리	3.20 (1.216)	2.61 (.862)	3.01 (1.144)	7.719* *	3.11 (1.656)	2.88 (1.113)	1.534
기타 공동활동	3.24 (1.283)	2.95 (1.378)	3.15 (1.316 )	1.380	3.23 (1.3311)	3.05 (1.327)	.532
전체 평균	3.70 (4.771)	3.37 (4.393)	3.60 (4.765)	7.120* *	3.69 (4.677)	3.48 (4.784)	3.318

\* p < .05, \*\* p < .01 평균= 6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참석안함, 2. 1년에 한두 번 참석, 3. 3개월에 한두 번 참석, 4. 1개월에 한두 번 참석, 5. 1개월에 한두 번 참석, 6. 매



## 일 참석)

이상에서 +40코하우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활동에는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전체참여도가 타거주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거주자의 참여도가 높은 공동활동 참여는 1인가구 여부 혹은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공동활동 특히 공동체육활동은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가 더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40코하우징으로 이주한 동기가 혼자지내지 않기 위해서나, 안심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와 같은 안전관련 이주동기가 타거주자들 보다 강해서 전반적인 공동활동에 더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연관시켜 볼 수 있겠다. 1인가구 거주자의 증가는 전체 공동활동 참여 뿐 아니라 특히 일반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공동체육활동이나 정원가꾸기 같은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40코하우징 거주자는 시니어 코하우징 거주자들 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최정신·조재순, 2016), 연령통합형 코하우징 거주자보다도 공동활동에 유의하게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Choi & Paulsson, 2011)고 밝힌 선행연구에서, +40코하우징의 활발한 공동활동참여의 기여자가 누구인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공동활동 참여빈도와 활동종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면(<표 5> 중간열 합계), 공동활동 참여 빈도에 대해서는(<표 5> 윗부분 합계) 전체적으로 +40코하우징 거주자의 3/4이상(76.2%)이 자신에게 딱 알맞다고 하였으며, 약 1/5(19.0%)은 조금 더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5%미만의 극소수는 너무 많다(4.0%)거나 혹은 매우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0.8%)고 보고 있었다. 참여하고 있는 공동활동의 종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표 5> 아랫부분 합계) 빈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다 낮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55.6%) 응답자가 공동활동 내용이 자신에게 딱 적합하다고 보는 반면, 1/3이상(37.3%)은 다소 다른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소수(7.1%)는 아주 다른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조재순, 2017).

<표 5> 1인가구 여부와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른 공동활동의 빈도와 종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차이

공동활동의 빈도와 종류에 대한 주관적 평가	1인가구 여부			X <sup>2</sup> / F -va lue	여성1인가구 여부		X <sup>2</sup> / F -val ue
	1인가 구	동거가 구	합계 (n=126)		여성1 인가구 (n1=70)	기타 (n2=56)	
	(n1=86)	(n2=41)					
월씬 더 많아야 한다	1 (1.2)	0	1 (.8)	X <sup>2</sup> = 3. 039	1 (1.4)	0	X <sup>2</sup> = 2. 509
조금 더 많아야 한다	13 (15.3)	11 (26.8)	24 (19.0)		11 (15.7)	13 (23.2)	
이대로 좋다	68 (80.0)	28 (68.3)	96 (76.2)		56 (80.0)	40 (71.4)	
너무 많다	3 (3.5)	2 (4.9)	5 (4.0)		2 (2.9)	3 (5.4)	
합계	85 (67.5)	41 (32.5)	126 (100)		70 (55.6)	56 (44.4)	
전혀 흥미 없다	5 (5.9)	4 (9.8)	9 (7.1)	F = .74 0	3 (4.3)	6 (10.7)	F = .543
약간 흥미 없다	31 (36.5)	16 (39.0)	47 (37.3)		26 (37.1)	21 (37.5)	
이대로 좋다	49 (57.6)	21 (51.2)	70 (55.6)		41 (58.6)	29 (51.8)	
평균	2.52	2.41	2.48		2.54	2.41	

이 공동활동 참여빈도와 종류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1인가구여부에 따라 (<표5> 좌측), 1인가구가 동거인이 있는 거주자 보다 양적으로 적당하다거나 활동내용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서도(<표5> 우측) 동일하게 나타나 여성1인가구는 타거주자들 보다 공동활동 빈도와 종류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다소 더 많았을 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활동의 빈도와 동류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은 1인가구 여부나 혹은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른 평가가 타거주자와 유의미하게 차이나

지 않으며,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와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1인가구와 여성1인가구의 공동활동 참여가 더 많은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은 각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종류의 공동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주관적 평가에서는 자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빈도나 종류가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 4.4. 물리적 공간환경 만족도의 차이

현재 거주하는 +40코하우징의 물리적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3개 범주의 17개 항목으로 알아본 4점 리커트 척도 측정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표 6> 중간 열 합계), 평균값이 가장 높은 만족도는 공동생활공간(3.47)이며, 그 다음은 건물디자인(3.29), 개인주거공간(3.07) 순으로 나타났다. +40코하우징의 물리적 공간환경의 세 범주의 만족도가 모두 3.0이상으로 높았는데, 이는 <표 2>에서 나타난 거주자들의 다양한 이주동기가 물리적 공간환경 디자인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개인주거공간보다도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공동생활공간을 단지 중심에 크게 배치하고 개인주택은 최소한의 필요공간만 확보하도록 계획하는 코하우징 단지의 디자인 특징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겠다.

각 범주의 개별항목별로 보면, 건물디자인에 있어서는 3개 항목 모두 중간 점수인 2.5점 이상이었으며, 만족도는 건물의 상태·위치(3.6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원·마당·근접환경(3.39), 건물외관(2.87) 순이었다. 이는 시내의 좋은 위치나 문화활동과의 접근성 등 환경관련 이주동기가 긍정적으로 실현되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공동활동공간에 있어서는 세탁실(3.77), 공동거실(3.70), 공동부엌(3.65)에 대해 3.5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운동실(2.43), 공동목욕·샤우나실(2.29)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발코니·테라스·옥외공간(3.43), 손님방(3.26), 기타 취미실(3.18)의 만족도는 중간순위이었다. 공동활동의 참여가 빈번한 공동식사나 커피모임, 자치운영위원회 참석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활동공간

에 대한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는 코하우징 커뮤니티의 공간과 활동의 연관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개인주거공간의 만족도는 5개 항목 모두 중간점수인 2.5점 이상으로 거실(3.3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욕실(3.33), 침실(3.22), 출입구(2.85), 창고(2.57)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개인주거공간이 작은 코하우징에서도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외에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중간점 이상으로 긍정적임이 주목된다.

<표 6> 1인가구 여부와 1인여성가구 여부에 따른 물리적 공간환경 만족도 차이  
평균 (SD)

물리적 공간환경	1인가구 여부			F- value	여성1인가구 여부		F- value
	1인가구 (n1=86)	동거가 구 (n2=41)	합계 (n=127)		여성1 인가구 (n1=71)	기타 (n2=56)	
건물 디자인	3.29 (1.683)	3.29 (1.503)	3.29 (1.621)	.000	3.32 (1.630)	3.26 (1.618)	.493
도시내 건물의 위치	3.60 (.619)	3.66 (.480)	3.62 (.576)	.241	3.59 (.623)	3.66 (.514)	.449
정원/마당 /근접환경	3.38 (.754)	3.39 (.771)	3.39 (.756)	.002	3.44 (.712)	3.32 (.811)	.724
건물의 외관	2.90 (.868)	2.83 (.771)	2.87 (.836)	.172	2.94 (.843)	2.79 (.825)	1.120
공동생활 시설	3.57 (4.002)	3.27 (4.507)	3.47 (4.304)	9.206 **	3.61 (3.897)	3.29 (4.521)	11.318**
공동부엌	3.70 (.462)	3.56 (.673)	3.65 (.540)	1.790	3.75 (.438)	3.54 (.631)	4.916*
공동거실/ 회의실	3.69 (.467)	3.73 (.593)	3.70 (.509)	.222	3.69 (.466)	3.71 (.563)	.070
세탁실	3.83 (.465)	3.66 (.693)	3.77 (.552)	2.575	3.82 (.487)	3.71 (.624)	1.083
운동실	2.63 (1.189)	2.00 (1.095)	2.43 (1.192)	8.140	2.69 (1.166)	2.09 (1.149)	8.423**

			2.29 (1.235 )	** 13.68 1***	2.56 (1.204)	1.95 (1.197)	8.261**
욕실/ 사우나실	2.56 (1.233)	1.73 (1.049)					
외부공간/ 발코니	3.52 (.731)	3.24 (.860)	3.43 (.783)	3.610	3.59 (.667)	3.23 (.874)	6.912*
손님방/ 손님용 아파트	3.30 (.737)	3.17 (.803)	3.26 (.758)	.835	3.34 (.716)	3.16 (.804)	1.722
기타공간/ 취미실	3.27 (.803)	3.00 (.922)	3.18 (.849)	2.794	3.34 (.792)	2.98 (.884)	5.706*
개인주택	3.09 (3.677)	3.01 (3.636)	3.07 (3.656)	.463	3.06 (3.764)	3.08 (3.547)	.037
현관/입구	2.91 (.928)	2.73 (.807)	2.85 (.892)	1.074	2.87 (.970)	2.82 (.789)	.105
부엌	3.13 (.980)	2.83 (.998)	3.03 (.992)	2.550	3.13 (.999)	2.91 (.978)	1.492
욕실	3.40 (.816)	3.20 (.928)	3.33 (.855)	1.529	3.37 (.832)	3.29 (.889)	.276
거실	3.34 (.791)	3.49 (.637)	3.39 (.746)	1.133	3.32 (.807)	3.46 (.660)	1.109
침실	3.16 (.852)	3.34 (.728)	3.22 (.816)	1.336	3.14 (.883)	3.32 (.716)	1.541
창고	2.62 (1.097)	2.49 (.978)	2.57 (1.058)	.407	2.51 (1.120)	2.66 (.977)	.659

\* p < .05, \*\* p < .01, \*\*\* p < .001

평균 = 4점 리커트 척도 (1. 나쁘다, 2. 그저 그렇다, 3. 좋다, 4. 매우 좋다)

이어서 1인가구여부에 따라 물리적 공간환경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표 6> 좌측), 물리적 공간 세 범주 가운데 평가가 가장 높았던 공동생활공간 만족도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1인가구가 동거인이 있는 거주자보다 공동생활시설 전반에 관한 만족도가 높았다. 공동생활공간의 세부항목에서는 운동실과, 공동목욕·사우나실에 대해 1인가구의 만족도가 동거인이 있는 거주자보다 더 높았다. 반면, 건물디자인과 개인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1인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 없이 동일하였다.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라서도(<표 6> 우측) 1인가구여부에서와 같이 공동생활공간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1인가구는 타거주자들보다 공동생활공간 전반과 공동생활공간의 여러 세부항목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항목별로는 1인가구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운동실과 공동목욕·샤우나실에 더해, 공동부엌, 발코니·테라스·옥외공간, 기타 취미실 등에 대한 여성1인가구의 만족도가 타거주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2>에서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의 주거규모가 타거주자들보다 유의하게 적었음에도 개인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은 코하우징 이념에 동의하고 자신의 가족규모에 맞는 주거규모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에서 1인가구 여부나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라 물리적 공간 환경 만족도 중 건물디자인이나 개인주거공간에 대한 평가는 타거주자들과 차이가 없는 반면, 전체 거주자의 평가가 가장 높았던 공동생활공간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타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주거관리나 환경관련 이주동기가 낮은 반면, 혼자지내지 않기 위해, 안심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와 같은 안전에 대한 강한 동기로 현 +40코하우징으로 이주해 와서, 공동활동에 더 적극 참여하며, 여러 공동활동이 이뤄지는 공동생활공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가 높은 공동생활공간의 세부항목이 1인가구에서 보다 여성1인가구에서 더 다양하게 차이가 나타난 점에서 볼 때,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은 전반적으로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1인가구에 이어 여성1인가구에게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5. 생활만족도 차이

생활만족도는 <표 7>의 중간 열 합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40코하우징에서의 생활에 대해 6개 항목으로 평가하였는데, 3점 항목 4개는 모두 평균 2.5이상 (2.55~2.82)이었고, 5점 항목 2개도 둘 다 4.0이상 (4.13~4.27)으로 각 항목 모두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교 편의를 위해 3점 척도 점수를 5점으로 변환해서 보면, 6개 항목이 모두 평균 4.0이상(4.13~4.64)으로 높으면서 가장 큰 1개 항목(4.64)을 제외하면 5개 항목간의 평균점수(4.13~4.40)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다른 사람에게 +40코하우징으로 이사 오도록 추천 하겠다’(2.82/3→4.64/5) 이었으며, 그 다음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가졌던 기대가 충족 되었다’(2.74/3→4.40/5)이다(조채순, 2017).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의 이주동기에서 가구유형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 이주해온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이곳에서 살면서 이주해 올 때 가졌던 기대가 충족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사 오도록 적극 추천하겠다고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표 7> 1인가구 여부와 1인여성가구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1인가구 여부			F-value	여성1인가구 여부		F-value
+40코하우징의 생활평가		1인가구 (n1=86)	동거가구 (n2=41)	합계 (n=127)		여성1인가구 (n1=71)	기타 (n2=56)	
당신의 주거와 생활이 성공적인가?	아니다	1 (1.2)	2 (4.9)	3 (2.4)	.447	1 (1.4)	2 (3.6)	.642
	그렇다	34 (39.5)	16 (39.0)	50 (39.5)		28 (39.4)	22 (39.3)	
	매우 그렇다	51 (59.3)	23 (56.1)	74 (58.3)		42 (59.2)	32 (57.1)	
	평균	2.58	2.51	<4.12/5>		2.58	2.54	
당신의 현재의 주거와 생활이 아주	훨씬 나빠졌다	2 (2.3)	2 (4.9)	4 (3.1)	1.632	1 (1.4)	3 (5.4)	3.088
	약간 나빠	5 (5.8)	4 (9.8)	9 (7.1)		3 (4.2)	6 (10.7)	

직접의 상황에 비해 어떠한가 ?	졌다							
	비슷	12	8	20		10	10	
	하다	(14.0)	(19.5)	(15.7)		(14.1)	(17.9)	
	약간 좋아 졌다	20	7	27		17	10	
	훨씬 좋아 졌다	(23.3)	(17.1)	(21.3)		(23.9)	(17.9)	
	47	20	67		40	27		
	(54.7)	(48.8)	(52.8)		(56.3)	(48.2)		
	평균	4.22	3.95	4.13		4.30	3.93	
이주 전에 가졌던 당신의 기대가 이루어졌 는가?	전혀	2	1	3	1.67 9	2	1	.023
	아니다	(2.3)	(2.4)	(2.4)		(2.8)	(1.8)	
	아니다	15	12	27		13	14	
	매우	(17.4)	(29.3)	(21.3)		(18.3)	(25.0)	
	그렇다	69	28	97		56	41	
	(80.2)	(68.3)	(76.4)	(78.9)	(73.2)			
			2.74					
	평균	2.78	2.66	<4.40/ 5>		2.76	2.71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당신의 주거와 생활은 어떠한가 ?	훨씬 더	1	0	1	.645	1	0	.659
	나쁘다	(1.2)		(.8)		(1.4)		
	약간 더	4	2	6		2	4	
	나쁘다	(4.7)	(4.9)	(4.7)		(2.8)	(7.1)	
	비슷하	10	9	19		9	10	
	다	(11.6)	(23.0)	(15.0)		(12.7)	(17.9)	
	조금 더	23	10	33		20	13	
좋다	(26.7)	(24.4)	(26.0)	(28.2)	(23.2)			
매우 더	48	20	68	39	29			
	(55.8)	(48.8)	(53.5)	(54.9)	(51.8)			
	평균	4.31	4.17	4.27		4.32	4.20	
동년배들 에게 +40코하 우정 이주를 추천할	전혀	1		1	.039	1	0	1. 221
	아니다	(1.2)		(.8)		(1.4)		
	그렇다	14	7	21		9	12	
	(16.3)	(17.1)	(16.5)	(12.7)	(21.4)			
	매우	71	34	105		61	44	



	그렇다	(82.6)	(82.9)	(82.7)		(85.9)	(78.6)
것인가?				2.82			
	평균	2.81	2.83	<4.64/ 5>		2.85	2.79
	전혀 아니다	2 (2.3)	1 (2.4)	3 (2.4)		2 (2.38)	1 (1.8)
현재가 꿈꾸던 생활인가 ?	그렇다	34 (39.5)	17 (41.5)	51 (40.2)	.043	27 (38.0)	27 (42.9)
	매우 그렇다	50 (58.1)	23 (56.1)	73 (57.5)		42 (59.2)	42 (55.4)
	평균	2.56	2.54	2.55 <4.10/ 5>		2.56	2.54

< > 비교를 위하여 3점 척도 점수를 5점 척도 점수로 변환하였음

1인가구여부에 따라 생활만족도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표 7> 좌측), 거의 모든 항목에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가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 보다 다소 높긴 하였으나 그 차이는 한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1인가구주여부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7> 우측). 두 분석결과는 +40코하우징에서의 높은 생활만족도는 1인가구 여부 혹은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 없이 타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행연구(최정신·조재순, 2016; 최정신·Paulsson, 2006, 2015; Choi & Paulsson, 2011)에서 일관되게 밝힌 코하우징 거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특징이 1인가구 여부와 성별을 통제해도 상관없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5. 결론

이 연구는 선행연구(최정신, 2013; 최정신·조재순, 2016; Choi & Paulsson, 2011)에서 코하우징에는 1인가구와 여성의 거주비율이 높고, 이러한 특징이

+40코하우징에서 강화된 점에 주목하여, 1인가구와 여성1인가구는 타거주자에 비해 일반적 특성과, 현 +40코하우징으로의 이주동기, 공동활동 참여, 물리적 공간환경평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자료는 선행연구(Choi & Paulsson, 2011)의 원자료 중 4개 +40코하우징 단지에 거주하는 127명에 대한 것으로, 1인가구 여부 변수는 거주형태 중 1인가구 (67.7%)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32.3%)가 약 2:1 정도였다. 여성1인가구 여부 변수는 가구유형과 성별이 합쳐진 것으로 여성1인가구 (55.9%)와 그 외 타가구 응답자(44.1%)로 구성되었다.

1인가구는 일반적 특성에서 동거인이 있는 경우와 건강, 학력, 직업에 차이가 없고 다만 여성과 연령이 많다는 점이 다를 뿐이며, 여성1인가구는 타거주자와 개인특성에서 차이가 없어 독신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점이 없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맞게 1인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거주기간이 길었다. 거주기간의 차이는 대상 +40코하우징 단지의 설립경과 연수와 유관할 것으로 보여 후속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거주하는 +40코하우징으로 이주한 동기의 전반적인 순위경향은 1인가구 여부나 또는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라 차이 없이 동일한 가운데, 한두개 이주동기 범주와 범주 내 항목에서 다른 점이 있다. +40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는 1인가구 여부나 여성1인가구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이주동기 범주인데 비해, 다른 이주동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1인가구는 동거인이 있는 거주자보다 이혼과 같은 개인적 이유와 안전과 관련된 혼자 지내지 않기 위해서가 큰 동기로 작용한 반면, 동거인이 있는 거주자는 1인가구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와 같은 주거관련 이유가 더 유의한 동기이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라 더욱 뚜렷하여 여성1인가구는 타거주자들보다 은퇴 같은 개인적 이유에 더해, 혼자지내지 않기, 안심하기,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와 같은 다양한 안전관련 이유가 큰 동기가 된 반면, 주거관리나 환경 관련 동기는 타거주자에게 더 중요한 이유이다. 이 연구의 1인가구여부나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른 이주동기 차이는, 선행연구(최정신 2013) 시계열에서 나타난 안전관련 이유의 상승 및 환경과 주거관련 이유의 하락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이주동기의 변화는

+40코하우징에 1인가구와 여성거주자 증가와 일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코하우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활동에는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전체참여도가 타거주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거주자의 참여도가 높은 공동활동 참여는 1인가구 여부 또는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공동활동 특히 공동체육활동은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히 참여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동활동 양과 종류에 관해서는 타거주자들과 다름없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40코하우징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공동활동참여의 기여자가 누구인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는 한편, 1인가구 증가는 전체공동활동 참여 뿐 아니라 특히 공동체육활동이나 정원가꾸기 같은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코하우징의 물리적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세 범주 모두 높은 가운데, 공동생활공간 만족도가 가장 높고, 개인주거공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결과는 공동생활공간을 단지중심에 크게 배치하고 개인주택은 최소한의 필요공간만 확보하도록 계획하는 코하우징 단지의 디자인 특징에 대해 거주자들이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가구 여부나 또는 여성1인가구 여부에 따라 건물디자인이나 개인주거공간에 대한 평가는 타거주자들과 차이가 없는 반면, 전체 거주자의 평가가 가장 높은 공동생활공간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주거이동 동기와 공동활동참여와 연관시켜 보면,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는 타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안전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고 현 +40코하우징으로 이주해 와서, 공동활동에 더 적극 참여하며, 여러 공동활동이 이뤄지는 공동생활공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은 전반적으로 물리적 공간환경 가운데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나 특히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 거주자들이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규모 선택이 가족규모에 맞게 이루어져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의 주거규모가 타거주자들 보다 유의하게 적음에도 개인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

코하우징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는 1인가구 여부나 여성1인가구여부에 따라 차이 없이 매우 긍정적이다. 오히려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는 타가구유형의 응답자 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아래에서 미미하게 더 높은 편일 정도로 +40코하우징에서 남들과 다름없이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40코하우징 생활 전반에서 1인가구가 지닌 차이는 안전에 대한 이주동기나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에서 여성1인가구가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동활동참여는 여성1인가구보다는 1인가구의 특징으로 좀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 둘 다 매우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다. +40코하우징 거주자들은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한 +40코하우징의 물리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런 접촉과 원하는 공동활동 참여를 통해 각자 이사 온 다양한 동기와 기대를 실현하면서 결과적으로 1인가구 여부나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가 +40코하우징의 만족스런 공동생활공간에서 공동활동을 통해 자신의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때, 1인가구의 증가는 일반적 특성 중 가구유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주동기, 공동활동,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요구 증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40코하우징의 특성을 강화하고 이념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코하우징 거주자의 대표적인 특성인 1인가구와 여성에 주목하고,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이주동기, 공동활동참여, 물리적 공간환경평가, 생활만족도를 총괄하여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와 타거주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연구대상 단지별 물리적 공간환경이나 운영실태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개별단지별 차이가 잠재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지별 차이를 통제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아울러 연령통합형 거주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의 생활특성을 밝히는 후속연구와, 코하우징 유형별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의 생활 차이에 관한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 연구결과는 1인가구나 여성1인가구가 특별하지 않은 일반가구유형의 하나로서 코하우징 삶을 통해 시민의식을

갖고 자신의 주거생활 요구와 공동체 이념을 주도적 역동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자원절약과 이상적인 이웃공동체를 강화해가는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부터 노년까지 전 연령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주거대안으로서 연령, 취미,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공동체주택이 관심을 끌고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는 점차 고령층에게 더 심화될 전망이어서 1인가구 증가와 사회 고령화를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주거대안으로 설립한 스웨덴 +40코하우징 거주자들에 대한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주거가 중년기 이후의 1인가구와 여성, 노인을 아울러 복지에 덜 의존하면서 노후세대 스스로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공동활동과 상호협조를 통해 일상생활과 위기상황에서 상호지지관계를 형성하고 1인가구와 고령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주거대안으로의 확대방안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민영·강순주·모정현. 2016. “1인가구 중심의 도심형 코하우징 계획”, 『2016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 2, 한국주거학회. pp. 115-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맞춤형 공동체주택』. 서울: SH서울주택도시공사.
- 유명소. 2017. 『서울시 코하우징 거주자 만족도와 지역공동체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 윤이나·홍형욱·성미희. 2014. "1인가구의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과 선호에 관한 연구". 『2014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 2, 한국주거학회. pp. 382-387.
- 이우정·이재우. 2010. “코하우징 활성화 방안 연구: 최소규모 코하우징의 가능성 고찰”, 『2010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 2, 한국주거학회. pp. 67-70.
- 조재순. 2017. “스웨덴 +40코하우징 주민의 주거이동유무에 따른 이주동기와 공동활동 참여도 및 생활만족도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권, 4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 43-56.
- 주거학연구회. 2000. 『더불어 사는 이웃,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 최정신. 2003a. “덴마크 자치관리모델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1권, 4호, 대한가정학회, pp. 1-19.
- 최정신. 2003b.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12호, 대한건축학회, pp. 129-138.
- 최정신. 2003c. “제3의 연령대를 위한 고령화 사회에의 도전: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건축』 47권, 6호, 대한건축학회, pp. 55-63.
- 최정신. 2004. “한부모 가족의 생활지원 주거대안: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 129-138.
- 최정신. 2005a. “스웨덴과 덴마크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비교”,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권, 6호, 한국주거학회, pp. 149-160.

- 최정신. 2005b. “주거에서의 양성평등의 실현: 스칸디나비아 코하우징 모델의 관점에서”,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6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pp. 165-190.
- 최정신. 2012. “스웨덴 코하우징 단지의 물리적 환경디자인 평가”,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3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pp. 115-150.
- 최정신. 2013.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 차이: 2001-2010년 10년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권, 3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 81-92.
- 최정신·조재순. 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 성별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 117-128.
- 최정신·조재순. 2016.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공동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 시계열 차이: 2001년도와 2010년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 1-12.
- 최정신·Paulsson, Jan. 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파주: 집문당.
- 최정신·Paulsson, Jan. 2015. 『스칸디나비아의 시니어 코하우징』. 서울: 어문학사.
- 최정신·홍서정. 2017. 『코하우징 공동체』. 서울: 어문학사.
- 홍형욱, 김대년, 권오정, 이경희, 조재순, 최정신. 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양평: 지식마당.
- 통계청. 2017a. 장래인구추계 1960-2065. 주요인구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검색(17. November, 2017)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9963&pageNo=28&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9963&pageNo=28&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검색 (30. December, 2017)

- Cars, Göran. 2010. "The welfare model provides a framework for Swedish housing policy".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ervice US AB. pp. 33-41.
- Choi, Jung Shin. 2004. "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12, No. 8, pp. 1189-1216.
- Choi, Jung Shin. 2013. "Why do people move to cohousing in Sweden?: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40 cohousing and the mixed-age cohousing?" *Architectural Research*, Vol. 15, No. 2, pp. 77-86.
- Choi, Jung Shin., Cho, Jaesoon, and Suh, Kuee Sook. 2014.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and satisfaction with common space: In a tentative framework of housing adjustment for Swedish cohousing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5, No. 4, pp. 125-133.
- Choi, Jung Shin & Paulsson, Jan. 2011. "Evaluation of common activity and life in Swedish cohousing uni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2, No. 2, pp. 133-146.
- Choi, Jung Shin & Strid, Marie. 2011. "Why do people move into cohousing communities in Sweden?: Differences between +40 cohousing and mixed-age cohousing". (Paper session presented). Abstract book of IAPS 2011 International Network Symposium. Daegu, Korea, pp. 152-153.
- Depaulo, Bella. 2015. *How We Live Now: Redefining Home and Family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ATRIA Books. (박지훈 역. 2016.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서울: RHK).
- Durrett, Charles. 2009. *The Senior Cohousing Handbook: A Community Approach to Independent Living* (2nd ed.). Gabriola Island, BC, Canada: New Society Publishers.



- Egerö, Bertil. 2010. "Cohousing: Issues and challenges".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service US AB. pp. 11-20.
- Egerö, Bertil. 2012. "Four decades of Swedish cohousing: What chances of a real take-off?" Paper presented at Le Studium conference 'Self-managed Cohousing: Born out of Need or New Ways of Life?' Tours, France (March, 2012).
- Johnson, Cat. 2016, December. "Aging in community: Inside the senior cohousing movement". Shareable. Retried from <https://www.shareable.net/blog/aging-in-community-inside-the-senior-cohousing-movement>(15. November, 2017).
- Kähler, Margrethe. 2010. "Collective housing and well-being".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service US AB. pp. 93-104.
- Kärnekull, Kerstin. 2010. "Thirty-three years from the start, time for new initiatives!"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service US AB. pp. 124-132.
- Kärnekull, Kerstin & Vestbro, Dick Urban. 2013, November. "Best practices in self-administration of communal senior housing, Sweden". In Dick Urban Vestbro ed., Best Practices in Self-administration of Communal Senior Housing: CoElderly Best Practice Report. pp. 15-22. Retrieved from <http://www.kollektivhus.nu/pdf/BestPracticeReport131116.pdf> (08. August, 2017).

- Kim, Hyunsook. 2017. Modeling sustainable cohousing for kyeonggi-do, Korea based on the Swedish cohou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Malmö University, Malmö, Sweden.
- Kollektivhus NU. 2018. "Welcome to our presentation of swedish cohousing experiences!" Retrieved from <http://kollektivhus.nu/pdf/Exhibition10low.pdf> (09, January 2018).
- Sandstedt, Eva. 2010. "Why do we discuss cohousing in Sweden in 2010?"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ervice US AB. pp. 87-92.
- Sangregorio, Inga-Lisa. 2000. Collaborative Housing in Sweden. Centraltryckeriet, Borås, Sweden: The Swedish Council for Building Research.
- Sangregorio, Inga-Lisa. 2010. "Collaborative housing from woman's perspective".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ervice US AB. pp. 114-123.
-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2017a. "Summary of Population Statistics 1960–2016". Retrieved from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composition/population-statistics/pong/tables-and-graphs/yearly-statistics--the-whole-country/summary-of-population-statistics/> (15. November, 2017).
-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2017b. "Age dependency ratio 1960–2016 and forecast 2017–2060". Retrieved from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pong/tables-and-graphs/the-future-population-of-sweden-20162060/age-dependency-ratio-and-forecast/> (15. November, 2017).
-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2017c. "Number of households by type of

household". Retrieved from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household-finances/income-and-income-distribution/households-finances/pong/tables-and-graphs/households/number-of-households-by-type-of-household/>(15. November, 2017)

- Thiberg, Sven. 1990. Housing Research & Design in Sweden. Swedish Council for Building Research. (이연숙 외 역. 1999. 『스웨덴의 주택연구와 디자인』 서울: 태림문화사).
- Toker, Zeynep. 2010. "New housing for new households: Comparing cohousing and new urbanist developments with women in mind".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Vol, 27. No. 4, pp. 325-339.
- Vestbro, Dick Urban. 2010a. "History of cohousing: Internationally and in Sweden".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service US AB. pp. 42-55.
- Vestbro, Dick Urban. 2010b. "Concepts and terminology".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service US AB. pp. 21-29.
- Vestbro, Dick Urban. 2014. "Cohousing in Sweden,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Retrieved from <http://kollektivhus.nu/pdf/SwedishCohousing14.pdf> (08. August, 2017).
- Westerholm, Barbro. 2010. "A good home for all your life". In Dick Urban Vestbro ed., In Living Together: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around the World.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Kollektivhus NU. Stockholm, Sweden: Universitetsservice US AB. pp. 30-32.

[www.kollektivhus.nu](http://www.kollektivhus.nu)

<Abstract>

## **Differences in Life of Swedish +40 Cohousing Residents according to Single or not and Female Single or not**

Choi, Jung Shin\* · Cho, Jaeso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motivation to move into +40 cohousing,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evalu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design, and life satisfaction of Swedish +40 cohousing residents between single and cohabitant households as well as female single households and other types. The data of 127 respondents from 4 of ‘+40 cohousing’ communities used for this research are the subset of data (Choi & Paulsson, 2011) nationwide surveyed from 12 cohousing communities in Swede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ome notable differences in housing characteristics, motivation to move in, participating in common activities, and evalu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design.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Single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han cohabitants to be female and aged and tended to reside longer in a smaller dwelling, the aspect which female single households shared. Also, single households were more motivated to move in by personal reasons but less so by housing management reasons. Female single household had similar reasons to move in, except having more items related to security reasons. Single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han cohabitants not only to frequently participate in common activities such as

---

\* Professor Emeritus, Major in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mmon exercise/gymnastics/walking and common gardening, but also to highly evaluate common facilities such as exercise room/or similar and bath/sauna. Similar to single households, female single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han other households to frequently participate in exercise/gymnastics/walking activities and to highly evaluate various common facilities.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in both pair of the group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mplies that the distinct differences of +40 cohousing found in previous research with respect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dwelling, motivation to move into +40 cohousing,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ies, evalu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design might reflect characteristics of cohousing living of single households and more or less female single households. However, their life satisfaction remained high regardless of living situation and gender.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irs of groups ma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and revitalizing the living in +40 cohousing community.

**Key Words:** Swedish +40 Cohousing, Motivation to move in, Participation in common activity, Evalu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design, Life satisfaction, Single household, Female single household

---

성명: 최정신  
소속: 가톨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 전공 명예교수  
E-mail: jjschoi@catholic.ac.kr

성명: 조재순  
소속: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jscho@knue.ac.kr

논문 접수일: 2018.5.29.  
수정원고 접수일: 2018.6.25.

논문심사 완료일: 2018.6.23.  
게재 확정일: 2018.6.25.